

One pick

업 앤 다운

김선호



브랜드 홈페이지 김선호 얼굴 가득 ‘손절’했던 광고계 공개 전환 왜?

정작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주위에서 더 난리다.

연기자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와 엮힌 사생활 논란으로 톨레코스터보다 더 요동치는 극과 극의 상황을 오가고 있다. 지인과 선후배임을 주장하는 이들이 갖은 의혹과 주장을 내놓으며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사이 광고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17일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직후 가장 먼저 김선호와 ‘손절’했던 광고계가 되돌아서 눈길을 끈다. 모델의 이미지를 브랜드의 생명처럼 여기는 유통업계와 광고계는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으로 인한 타격을 우려해 발 빠르게 관련 이미지와 영상 등을 감췄다. 하지만 김선호를 광고모델로 내세웠던 카메라와 마스크 브랜드가 비공개로 전환했던 영상을 28일 다시 공개했다. 공식 홈페이지도 김선호의 얼굴로 가득 채웠다.

최근 김선호의 이미지가 어느새 달라졌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임신중절 강요’ 등 전 여자친구의 주장을 반박하는 지인의 ‘합의에 따른 임신중절’ 등 또 다른 주장이 나온 뒤이다. 이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그를 광고모델로 내세웠던 다른 브랜드들도 현재 관련 영상과 이미지를 다시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임 할머니와의 1년…내 어머니를 보았다”

“어르신들 공부방 찾아다니다 만난 임할머니 남편 떠나도 자식 앞에선 눈물 삼키는 모습 위대한 모정과 젊음의 의지…모든게 빛났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 산골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임선녀(68) 할머니의 쓰러질 듯한 낡은 집 인근에는 ‘민둥산’이 있다. 대규모 산불이 남긴 생채기이다. 2017년 5월 무려 475개의 축구장 면적에 해당하는 765ha의 땅을 활취고 간 화마는 임 할머니 동네의 야산마저 그냥 놔두지 않았다.

여전히 겹겹이 그늘린 나무 밑둥 사이사이로 흙먼지만 날리지만, 생명은 시나브로 피어난다. 한 송이 진달래로, 그 여린 분홍빛은 사람 세상으로 퍼져나갈 새로운 희망의 온기이다.

● “어머니들, 그들의 에너지가 좋다”

다큐멘터리 영화 연출자 원호연 감독은 임선녀 할머니의 1년여 평범한 일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그 온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20일 선보인 신작 다큐멘터리 영화 ‘한창나이 선녀님’(제작 큰물고기미디어)이다. 원 감독은 개봉 이후 “뒤늦게 글을 공부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영화를 보여드리려 이곳저곳을 돌고 있다”며 단체관람의 공감을 쌓아가고 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나의 어머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그들의 에너지가 너무 좋다.”

2018년 2월 만학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좇아 강원도로 향해 거의 모든 공부방을 찾아다녔다. “점점산중에서 살아가는 사연 많은”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1년 3개월여 만에 임 할머니를 만났다. 그러나 “내가 젊은 날 못 배워 나이 들어서라도 글을 배워야겠다”는, 어느 어르신의 의지가 할머니에겐 없었다. 그저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느낌”이 가슴에 강하게 스며들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한창나이 선녀님’의 원호연 감독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임선녀 할머니의 일상을 세밀하고도 따스한 시선으로 들여다봤다. 그리고 내년 또 한 편의 ‘사람 이야기’를 내놓을 계획이다. 사진·제작 | 큰물고기미디어

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이 먼저 떠나가며 남긴 “내 죽으면 어찌 살아갈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책을 폈다. 산골 집에서 공부방인 읍내 복지회관까지 택시비 2만8000원을 들여 일주일에 사나흘 길을 오갔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집을 짓기로도 했다.

● “사람 이야기, 나를 되돌아보다”

그런 할머니의 일상을 원 감독은 낯 것 그대로 “자연스럽게 담아내며 1년을 보았다”. 그 시간은 오롯하게 희망과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다. 눈송이만이 캄캄한 겨울밤의 세상을 희미하게 밝혀주는 첫 장면에서 시작해 마침내 차마 끝에 달린 고드름이 쨍쨍한 햇볕에 녹아내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끝을 맺는 사이 할머니도, 원 감독도 새로운 꿈을 폈다.

임 할머니는 문해 과정을 이수했고, 새로운 집도 완성했다. 원 감독은 “다른 이들의 것과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의 일상을 따라가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를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감독은 또 자식들이 걱정할까, 남편과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순간에도 울지 못했던 할머니에게서 “내 어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에게서 “노령의 젊음”을 보기도 했다. “여전히 뭐가 해볼 수 있는 나이, 하지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젊음의 의지”였다.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의지”는 “카메라 앵글에 담기는 장면과 장면들의 재미”를 깨달아가는 원 감독의 것이기도 하다. 2012년 ‘강선장’으로 카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 받으며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더 잘 만들고 싶다”는 의지이다.

“한 사람의 평범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로 관객이 꿈을 꾸고 다시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의 연출자로서 품은 작은 소망인 듯하다. 또 한편의 장기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막바지 작업실로 다시 향하는 감독의 뒷모습이 바빠 보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단아함의 아이콘’ 이영애가 코믹 액션을?

새 드라마 ‘구경이’서 괴팍 탐정 ‘코믹 액션퀸’ 이하늬에 도전장



이영애

안방극장에 톱스타들의 ‘코믹 원맨쇼’가 펼쳐진다. SBS 금토드라마 ‘원 더 우먼’의 이하늬에 이어 이영애가 30일부터 방송하는 JTBC 토일드라마 ‘구경이’로 코믹 액션에 도전한다.

2017년 ‘사임당 빛의 일기’ 이후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오는 이영애는 극중 전직 경찰관이자 사립탐정 역을 맡아 사고로

위장된 연쇄살인 사건을 파헤친다. ‘신사임당’ ‘대장금’ 등 단아한 여성상을 주로 연기해온 것과 달리 데뷔 이후 처음 도전

하는 코믹 연기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괴팍한 성격에 산발로 풀어헤친 헤어스타일, 뽀얀 얼굴빛의 캐릭터로 잔뜩 망가진다. 게임에 빠져있는 설정을 위해 실제 아들에게 게임을 배우기도 했다.

시청자들은 “너나 잘 하세요”라는 명대사를 남긴 영화 ‘친절한 금치씨’를 잇는 대표작이 될 것이라고 벌써 기대하고 있다. 이영애는 “연기하면서도 정말 재미있고, 이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다양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어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양한 사건을 “만화처럼 편하게” 풀어내며 액션도 덧붙인다. 그는 “어설피게나마 펼쳐지는 ‘이영애의 액션’이 지루하지

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에 앞서 이하늬가 ‘코믹 액션 퀸’으로 자리매김했다. 극중 외모가 톱 닥은 재벌가 며느리의 인생을 살게 된 검사를 연기하면서 1인2역을 능청스럽게 소화해 최근 12.5%(닐슨코리아)까지 시청률을 끌어올렸다. 전작인 영화 ‘극한직업’과 드라마 ‘열혈사제’에 이어 흥행시키며 ‘원톱’으로 우뚝 섰다.

시청자들은 이하늬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와 속 시원한 쾌감을 드라마의 매력으로 꼽고 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이하늬를 다시 봐도 재미있다” “보다보면 가슴이 뽕뽕린다” 등 호평이 올랐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밀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